제주 마을 여행 챌린지 11편 영상 순차적 공개

제주관광공사, '비짓제주'에 9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업로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9월 13일까지 유튜브 채널 '비짓제주'를 통해 현지 토박이 주민들이 직접 소개하는 '제주 마을 여행 챌린지' 영상 시리즈 11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마을의 숨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는 지난 7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제주도와 공사는 '제주 마을 여행 챌린지' 영상 시리즈를 통해 마을의 정서가 묻어나는 숨은 명소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마을 전통의 이야기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내·외국인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방침이다.

60초 내외의 짧은 숏폼으로 제작된 영상 안에는 마을의 정취, 주민, 풍경이 정겹게 담아있는 등 시청자들에게 마을에 대한 강한 인상과 몰입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 해녀 삼춘(지역의 어른을 뜻하는 제주어) 등 각 마을의 터줏대감 주민이 직접 출연, 제주 마을 여행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는 한림읍 비양리·남원읍 신흥2리·한림읍·천지동 등 4편이 비짓제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됐으며 용담1동·예래동·중앙동·남원읍 의귀리·성산읍 고성리·한경면 저지리·영천동 등 남은 7편도 오는 9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각 마을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번 영상 시리즈를 준비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마을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공사는 제주 마을 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내가 추천하는 제주 여행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참여자들이 직접 제주 관광 명소를 추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홍보 확산과 제주 마을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짓제주 유튜브 '내가 추천하는 제주 여행' 영상 콘텐츠를 확인하면 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제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제2차 예비·신규 인증 공고 실시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5년 제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제2차 예비·신규 인증 공고를 28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약 2개월 간 실시한다.

센터는 이에 따른 설명회를 다음 달 6일 서귀포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3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제주6차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 이후 참여한 경영체를 우선적으로 센터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예비·신규 인증 공고 관련 준비를 함께하게 된다. 신규 인증 심사 신청시 20만원, 갱신 인증 심사 신청시 1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되며 예비 인증심사의 경우 무료로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2025년 제1차 예비·신규 인증 모집 공고를 통해 예비인증 4개소, 신규인증 14개소를 발굴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삼성전자, 테슬라 22.8조원 파운드리 계약 수주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따냈다. 그동안 분기마다 수조원대 적자를 냈던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공급계약은 작년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최대급 계약이다. 삼성전자는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그 상대가 테슬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컨소시엄 공모 진행

세계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맡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5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과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해 추자도 해상에서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사업에서 공공적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주민과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공유이익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에 따른 현장 설명회는 오는 8월 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된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공모 예정 일정 ▲평가 세부 내용 ▲참여 조건 및 자격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 참석 기업(법인)에 한해 사업 제안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설명회 참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장 설명회 이후 ▲1단계(PQ) 평가 ▲2단계 사업제안서(정량·정성)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희망자는 향후 관리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며, 제주도로부터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후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김동건 기자 kdg@samdailbo.com

제주관광공사, 런케이션 참여 대학생 대상 숙박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런케이션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시 민간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와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외 청년층의 제주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와 런케이션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 또는 제주대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한 도외 대학 소속 학생이다.

참여자는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민간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3박까지(1박당 최대 5만원) 총 15만원의 숙박비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출장뷔페 각종 행사음식 전문업체
하나로 출장뷔페 도시락
맛과 정성, 엄마의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정성껏 배달하여 드립니다.

문의 064. 726. 0100, 010.3693.0233 / 공장 726-0233
위치 제주시 사라봉1길 45
맛을 담다

정말! 억울하지요!! 돈잃고, 사람잃고..
빌려준 사람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집행권원(판결문)있는 민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기타 등 등..
아, 잠깐!! 저희 회사는 착수금(선불경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받겠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064)757-7770, FAX.757-7769